

한가위 '마을 노래자랑'이 변하고 있다



지난 25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마을 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지역주민을 위한 한가위 노래자랑'. 행사 진행 의뢰를 맡은 '광주 무등예문회'(회장 류규중) 회원 11명이 뽕과리·장·장구·북으로 흥을 돋우고 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진행 방식·상품·노래 장르 '도시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열린 '마을 노래자랑'이 변하고 있다. 진행방식·상품·노래 장르 등에서 농촌화가 사라지고 도시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광주·전남에서 '한가위 노래자랑'을 개최한 마을은 100여 곳. 길게는 30년에서 짧게는 5년 넘게 이어온 '노래자랑'은 오래된 전통만큼 모습도 달라졌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 광풍(狂風)'으로 옛날과 달리 초·중·고생 참가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추석 뒤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가 예정돼 부모들이 함께 데리고 나오지 않고 있다. 상품도 스테인리스 냄비·휴대용 버너·TV·전기밥솥·

전문사회자 초청 상품권·성대모사 성적 부담 초·중·고생 참가자 '뚝'

지역특산물·세탁기 등 주부가 선호하는 부익부흥이었으나 최근엔 노트북·문화상품권 등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 참가자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과거 '고향생각' '고향 무정' 등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는 트로트 노래가 주를 이뤘지만, 요즘은 발라드·댄스·록·가곡·클래식·팝송·성대모사 등으로 영역이 넓혀졌다. 무대진행도 통기타나 노래방 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밴드나 사회자를 불

러 진행하는 등 전문화되고 있다. 아쉬운 대목은 마을 주민이 격감하면서 매년 추석 한 차례 개최하던 노래자랑 대회가 격년제로 줄어들고, 체육대회로 대신하는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북구 충효동 마을청년회인 '충민회'(忠民會)는 지난 25일 마을회관에서 '제12회 지역주민을 위한 한가위 노래자랑'을 열었다. 참가자 50명 중 40명은 30~40대로 출향인들이 대부분. 심시일반으로

400만원을 모아 올해 처음으로 전문 밴드와 사회자를 초청했다.

담양군 대전면 '마을청년회'는 지난 24일 마을 회관에서 '면민 화합 대전치'를 열었다. 올해로 25회째인 이날 행사에는 노트북·주유권·외식권이 상품으로 나왔으며, 가수 지망생과 성악전공자 등 이색 참가자들이 많았다.

'충민회' 황보연(52) 회장은 "예전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회도 보고 통기타로 반주를 해줬는데, 주민수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 전 문팀에 맡겼다"며 "하지만 고향의 넉넉한 인심과 정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변모하는 명절 풍속도

유비쿼터스 이용해 귀성·귀경 관광지 들며 '추석 휴가' 보내

명절 풍속도가 변모하고 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주고 받음)를 이용한 귀성·귀경이 자리를 잡았고 한산하던 관광지 및 식당가도 북적이고 있다.

회사원 김영준(29·대전시 중구)씨는 지난 22일 광주에 내려오면서 노트북으로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m)에 접속했다. 김씨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파악해 다른 사람보다 두 시간 빠른 세 시간 만에 광주에 도착했다.

지난 22~25일 '로드플러스' 접속건 수는 44만9천 건으로 전년도(22만1천 건) 추석에 비해 203% 증가했다. ARS 이용도 45만3천 건으로 123%(전년 추석 36만7천 건)가 증가했다.

김유성(여·27·수원시 장안구)씨는 지난 23일 남편과 함께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죽녹원 등을 돌며 여행을 즐겼다. 광주에 살고 있는 부모님께 양해를 얻은 후 1박 2일 동안 관광지를 돌며 여름 휴가를 대신했다.

지난 22~26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는 2천500여 명의 이용객이 몰렸으며, 여수 오동도 2만5천여 명, 담양 죽녹원·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은 6만여 명이 찾아왔다.

관광지를 둘러보는 귀향객이 늘면서 예년과 달리 식당들도 문을 열었다. 담양군 담양읍 떡갈비집 7곳과 관광전 둔치 전통 국숫집들은 모두 영업을 했다. 여수 돌산 대교 인근 횡집 10여 곳도 평일보다 40%가량 높은 매출을 올렸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우울한 추석

신변 비관 자살 잇따라...광주·전남 3명 숨져

추석 연휴, 명절 때 더욱 우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25일 오전 10시42분께 목포시 산정동 I아파트에서 주민 이모(5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혼한 뒤 아내·자녀와 떨어져 동생집에 얹혀 살고, 명절 때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했다"는 유족의 말에 따라 동생 가족들이 성묘를 간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3일 낮 12시50분께 광주시 동구 L아파트 화단에서 주민 김모(여·65)씨가 피를 흘린 채 숨졌다. 유족들은 "20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

아온 김씨가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지병으로 인한 자신의 행동이 친척들에게 이상하게 비칠 것을 걱정했었다"며 "이날 차례상에 술 포막을 사러나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외 지난 22일 광양시 중동 B아파트에서 강모(33)씨가 극약을 마시는 등 추석 연휴 광주·전남에서는 6명이 자살을 기도해 이중 3명이 숨졌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1시50분께 완도군 노화읍 한 저수지에서 박모(8)양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정모(74)씨가 집에서 송편을 먹다가 기도 가 막히는 바람에 숨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원침 (7316) 김종두



열차 3시간 고장...귀경객 큰 불편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께 여수발 용산행 '제1132호' 새마을호 열차가 순천시 황전면 구례구역에서 제동장치 이상으로 운행을 중단했다. 열차는 구례구역에 정차한 후 출발 직전 갑자기 제동장치에 불꽃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순천에서 탑승한 승객 247명은 사고 발생 3시간30분 뒤인 밤 11시 30분께 열차를 타고 뒤늦게 귀경

길에 올랐다. 철도공사 측은 열차 지연 대가로 구례구역 이후 탑승 예정이었던 승객을 포함, 모두 560명에게 열차 요금 전액을 환불해 줬다.

승객들은 그러나 "다음날 새벽 용산역에 도착해보니 대중교통 운행이 모두 끊겨 또다시 불편을 겪었다"며 철도공사 측의 정비 불량을 비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추석 연휴 교통사고 크게 줄었다

전남서 140건 발생 전년보다 42% 격감

올 추석 연휴(9월21~26일)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10월 3일~8일)에 비해 4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140건으로 지난해 242건에 비해 102건(42.1%)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지난해 10명에서 올해는 5명이었고,

부상자도 지난해(508명)보다 51.6% 줄어든 215명이었다. 올 추석에 광주지역을 찾은 귀성 차량은 15만1천여 대로 전년도 18만4천여 대보다 17.9% 줄었다.

올 교통사고가 줄어든 원인은 ▲귀성 차량이 크게 줄고 ▲긴 연휴 기간 중 차량이 분산됐으며 ▲고향~담양 고속도로가 개통하는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이스피싱 중국인

징역 4년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수범으로 한 달 새 5천만원을 뜯어낸 중국인 왕모

(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족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며 "대한민국이 이 같은 범죄에 적합한 곳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성묘 안간다' 횡감에 부인 폭행

○추석날 '성묘(省墓)에 가지 않는다'며 부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6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43)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40분께 북구 용봉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38)씨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를 거부하자 부인의 팔을 비틀고 머리 등을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추석 전날 부인과 돈 문제로 싸웠는데, 부인이 이 때문에 차례도 지내지 않고 성묘도 가려고 하지 않자 횡감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김씨는 경찰에서 "추석날 친·인척이 모두 모여 기분 좋게 보내려고 했는데, 부인이 짜증을 내 큰소리를 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as-Halming-su' (가스할명수) featuring a woman and a bottle of the beverage. Text includes '저도 가스할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부채표가 없는 것은 할명수가 아닙니다!', and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할명수큐!'.